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도자료

■ 제공일: 2026년 10월 27일
■ 제공자: 최병옥 연구위원
전화: 061-820-2334
■ 배포부서: KREI 성과홍보팀
전화: 061-820-2127
■ 매수: 2매
■ 사진: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REI, 농산물 가격 안정 위해 도매시장 '예약거래' 확대 필요

KREI, 「농산물 도매시장의 예약거래 도입 및 활성화 방안」 통해 밝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매시장의 예약거래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예약거래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발간했다.

□ 현재 국내 농산물 도매시장은 경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상 변화나 출하량 변동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물류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산자와 유통업체 모두 안정적인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농산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거래 시기와 물량, 가격 등을 미리 협의하는 '예약거래'를 기존 경매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제시했다.

□ 예약거래는 생산자가 출하 물량과 시기를 미리 계획하고, 구매자는 필요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래방식이다. 이를 통해 가격과 공급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예약거래 활성화는 상거래와 물류를 분리하여 유통비용 절감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도매시장의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거래 기반 조성의 기본적 요건이다.

□ 연구진이 농산물 생산·유통조직과 도매시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약거래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과 거래 물량 확보의 어려움, 제도적 불확실성 등이 주요 걸림돌로 지적됐다. 반면 일본과 대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예약거래를 활용해 농산물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에 연구진은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예약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품목별 특성에 맞는 거래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가격·물량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할 수 있도록 보험과 보증 등 지원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병옥 연구위원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예약거래는 기존 경매제도를 보완해 생산자와 유통업체 모두의 거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예약거래가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생산단계의 계약재배와 도매시장 단계의 예약거래가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